

나주시, 영산강 저류지에 대규모 체육공원

27억 들여 야구·축구·게이트볼장 등 이달 착공

각종대회·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나주시가 영산강 저류지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이 집중하면서 영산강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는 14일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 공사가 전남도의 재정 투입자본사, 영산강유역청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익산청의 하천점

용허가 등 모든 허가절차를 마치고 이달 내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영산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171만㎡ 가운데 16만5000여㎡에 들어설 체육공원에는 모두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7월 2013 KBO총재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경기장 부족으로 일부 경기를 광주에서 치른 바 있다.

시는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나주시와 KBO 간 협약체결로 진행중인 전국 여자·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각종 사회인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연간 3만여명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2013 KBO총재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경기장 부족으로 일부 경기를 광주에서 치른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체육시설의 위치

를 100년 주기로 산출된 영산강 홍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배치해 우수기 영산강 범람에 대비하기로 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임직원 가족,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체육 동호회 단체들의 시설 이용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담양보전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교실 운영

담양군 보건소(소장 조명순)는 14일 “새해 금연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이종 금연클리닉 교실은 지난 10일 담양군 남면의 무등산 생태요양병원 강당에서 열렸으며, 이날 병원 근무자 및 요양환자,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보건소 측은 지역 기관이나 단체가 요청할 경우 일정에 맞춰 금연클리닉 교실을 현장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교육은 흡연 예방법과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금단현상 극복법을 알려주고 금연보조제를 나눠주는 등 1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장성 전남생물진흥원 바이오연구원

유방암 진단용 나노 조영제 개발 나서

장성에 있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원(원장 유수) 연구기관과 함께 유방암 진단용 나노 조영제 개발에 나선다.

연구원은 14일 “나노 조영제 개발 컨소시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과제 수행 주체로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관련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나노융합산업 연구조합, 센트럴 메디컬서비스, 연세대의료원, 고려대 화학과, 차바이오메드, 서울대병원, 차의과대학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5년간 국비 92억5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125억원을 들여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대량생산 공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지능형 자기공명영상 나노 조영제는 특정 수용체가

발현되는 유방암 조직만을 영상화할 수 있어 유방암 조기진단과 표적 항암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중인 ‘가돌리늄-길레이트’ 기반 조영제를 사용해 찍은 자기공명영상 자료로는 유방암의 표적 마커 발현 여부를 판정하기 힘들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조영제 전문회사인 센트럴 메디컬서비스(주)를 유지했다. 이 회사는 2015년 10월까지 장성에서 임상용 나노 조영 소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재의 나노바이오연구원장은 “차세대 나노조영제 개발로 유방암 진단 및 진료의 질에 관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술이 앞서서만은 만큼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장성군 매주 화요일 여권발급 연장 근무

장성군은 14일 “다음달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여권발급 연장근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발급이 직접 방문을 통해 지문확인 단계 등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민원임을 감안, 일과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8시까지 접수부터 심사, 교부까지 여권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 수수료 등을 구비하면 된다.

군은 이번 연장근무제로 주민들의 여권 발급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매주 익는 강진 신기마을

연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전통진장마을로 잘 알려진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백정재(여·76)씨가 이웃 주민과 함께 지난해 가을 정성들여 만들어 놓은 매주를 살피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북

동학농민혁명 성지 위상 재정립

정읍, 2017년까지 기념공원·최초 봉기탑 건립 박차

정읍시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을 맞아 ‘혁명성지’로서의 위상 재정립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조성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이어 고부봉기를 상징하는 ‘동학농민혁명 최초 봉기탑’도 세우기로 했다.

시는 14일 “120주년이 되는 올해 민선 5기에서 추진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을 재정립하고 상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5기 가장 큰 성과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비 388억원과 부지 95억원 등 480억원을 들

여 덕천면 황토현전승지 33만5826㎡(약 10만평) 부지에 추진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다. 공원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고 정신계승을 위한 희생자 공동묘역과 위령탑 등 추모시설, 연구소와 연수동 등 연구시설, 동학농민혁명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황토현전승지는 지난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치른 최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전승지로, 1981년 국가문화재 사적 제295호로 지정됐다. 1987년 이후에는 전봉준 동상과 사당인 구민사 등을 비롯해 기념시설이

조성된 뒤 2004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맞은 편에 들어섰고 2010년부터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상주하고 있다.

시는 기념공원 조성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봉기를 상징하는 ‘동학농민혁명 최초 봉기탑’도 세울 방침이다.

시는 올해 동학농민혁명의 계기를 제공한 ‘사발뿔론 거사계획’이 결의됐던 고부면 신중리 대피마을도 정비하고 올해 제47회를 맞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등을 보다 내실있게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제4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순창, 두릅 지리적 표시 등록 추진

삼채 브랜드사업도

순창군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적재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순창블루베리’의 단체표장 등록 출원에 이어 올해는 두릅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상표 등록과 삼채의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순창 블루베리의 명품화와 순창블루베리 명칭사용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관리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원을 완료하고, 특허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하는 법인이나 그 소속단체 등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지리적표시 등록이 되면 순창군과 해당법인 외에 순창블루베리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하위표시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돼 FTA 등 국제화 시대에 ‘순창 블루베리’ 브랜드 보호에 효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순창두릅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표등록 관리와 삼채에 대한 브랜드 관리와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설 명절 교통시설물 특별점검

전주시는 14일 “설 명절을 맞아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물 14종과 공영주차장 57개소에 대해 7개반 28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등을 일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재래시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시선유도봉, 무단횡단방지시설, 교통표지판 등을 중점 점검하고, 공영주차장 57개소에 대해서도 주차장 안내표지판, 높이제한 등 시설물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 명절 연휴기간 동안 원활한 교

통흐름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귀성차량 및 성묘객으로 인한 정체에 예상되는 기린대로와 유원로 구간의 사전 교통량을 조사해 효율적인 신호운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흐름관찰용 CCTV,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가변전광판 등 교통신호시설물의 작동 상태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관련시설물 사전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정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휴기간 중에도 교통상황실을 운영해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동심 깨우는 숨결전

전북대박물관은 갤러리 인드라망 주최로 14일의 중견작가들을 초청해 ‘동심 깨우는 강한 숨결전’을 개최한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목, 김한수, 차홍규, 이상하 등 중견작가들의 최신작이 전시된다. 사진은 11일 열린 개막식에서 선보인 신웅구 작가의 이미지 퍼포먼스.

전북대박물관은 갤러리 인드라망 주최로 14일의 중견작가들을 초청해 ‘동심 깨우는 강한 숨결전’을 개최한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목, 김한수, 차홍규, 이상하 등 중견작가들의 최신작이 전시된다. 사진은 11일 열린 개막식에서 선보인 신웅구 작가의 이미지 퍼포먼스.

/연남뉴스

단신

정읍시의회, 17~24일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는 제19회 임시회를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범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생기시장의 2014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 및 안건을 처리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또 문영소 의원이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건의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고창, 소규모 벼 육묘장 8억 지원

고창군은 제 벼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못자리 육묘 확보 및 부족한 농촌일손 확충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7억97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육묘장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65㎡(50평)의 육묘장과 육묘생산 장비(발아기, 파종기, 육묘컨테이너, 상자세척기 중 선택)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 농업인(작목반, 법인 단체 등)으로 기존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고창=음향영기자 cy0370@

남원, 16·17·24일 축항 등 일부지역 단수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14일 “죽항, 상교, 하정, 조산, 금동 일부지역이 1월16·17일, 24일 새벽시간 단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 단수는 이들 지역 상수관망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3일 동안 각각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지역

3000세대가 새벽시간에 수도물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정하고, 작업 후 녹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퇴수조치를 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 내달부터 상반기 여성사회교육

순창군이 오는 2월부터 상반기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한다. 관심있는 지역 여성과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은 컴퓨터 기초반 외 1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목당 20명씩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과정으로 기술교육과 취

미교육으로 세분화돼 여성회관과 문화의 집에서 실시되며, 올해는 동양자수, 생활자수, 캘리그래피 등 3개 과목이 신설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0일까지 군청 주민행복과(063-650-1277)나 여성회관(063-650-1665)으로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